

[2025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 결과발표

‘2025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겨울축제를 신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식초청작 선정 결과

단체명	공연명	대표자명
김예은	이 세상 말고	김예은
스튜디오 나나다시	노인과 바다, 그리고 소년	김예나
스튜디오9	라몰의 땅	조하석
이야기꾼의 책공연	코 잃은 코끼리 코바	김형아
팔꿈치의 활동범위	문문 읽기	정진웅
FORCE(포스)	자전 Jajeon(Rotation)	이영호

※ 단체명 가나다순 정렬

■ 심사 총평

총평

2025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이자 제33회 서울 어린이 연극상 후보작 공모에 신청해 주신 모든 예술가들과 예술단체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공모에는 총 74편의 다양한 장르와 색채의 응모작들이 참가 신청을 해 왔습니다. 지원신청서에 작성하신 작품소개 및 창작의 과정에 대한 진솔한 글들을 읽으며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관객을 만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느껴져 반갑고도 감사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여러 차례의 온, 오프라인 소통과 회의를 거치며 심사의 방향성 및 선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고, 심사위원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엄선된 선정후보작을 두고, 장시간의 열띤 토론과 심의를 거쳐 최종 6 작품을 2025년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극, 뮤지컬, 전통, 무용, 인형극 그리고 융·복합형 예술 등등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했고,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를 마음에 품은 어른 관객까지 상상하며, 섬세하게 고려하여, 각각의 관객층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엄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염두에 두었던 점은, 관객 특정 작품을 대하는 창작자들의 정성 어린 태도와 진실성 그리고 작품의 예술성이었습니다.

올해의 선정작은 명작고전을 참신한 시선으로 각색한 릴렉스드 퍼포먼스, 일상의 오브제가 상상력 가득한 동물들로 변신하는 패브릭 오브제극, ACC 창·제작 지원 과정을 거치며 인도의 독특한 색채와 서사를 담아낸 이국적 모험 이야기, 극한의 상황에서 두 주인공의 갈등과 절망 등의 감정을 잘 담아낸 청소년극, 젊은 감각으로 무대와 무대 밖 공간을 넘나드는 실험과 시도가 빛나는 팝업북 공연 그리고 자전과 공전, 우주와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한 비언어 서커스 공연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74편의 어린이 청소년 작품 중에서 단 여섯 작품만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은,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가혹한 숙제였습니다. 지원정책의 변화로 예년에 비해 축제 예산이 상당 삭감되는 등의 이유로 한정된 규모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모든 신청 단체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관객을 만나기 위한 여러분의 쉼 없는 발걸음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2024년은 여러모로 기억하게 될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7월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를 기점으로 새로이 개관한 어린이청소년 전용 극장인 ‘아르코꿈밭극장’의 개관과 함께 그 극장에서 울려 퍼지는 어린이 관객들의 웃음소리를 객석 뒤편에서 들으며 참으로 감동스럽고도, 가슴 뭉클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배움의 텃밭인 학전소극장을 지켜내시며 미래세대 예술가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그 너른 등과 양지를 내어주신 고 김민기 선생님의 거룩한 가르침과 예술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르코꿈밭극장’이 그 아름다운 올림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아시테지의 모두가 함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4년 8월 1일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예술감독 신인선
심사위원 김형희, 김민정, 손준형, 윤종연